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년 4월 9일 | 책임조사역(G3) 이자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일반개황

면적 9,597천 km ² 	인구 1,397백만 명 (2018 ^e)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 외교 
GDP 13조 4,573억 달러 (2018 ^e) 	1인당GDP 9,633달러 	통화단위 元 (RMB) 	환율(US기준) 6.62 (2018 ^e)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연평균 약 9.5%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2019년 경제성장 목표를 6.0~6.5%로 하향 조정하여 '안정 속 성장'(溫中求進)을 추구할 계획임.
-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기업부채, 지역 간 불균형 및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바, 2020년에 의식주 해결의 풍요로운 사회인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을 위해 질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과제임.
-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기인하여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는 등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주요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4), 형사사법공조조약('00),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05), 투자증권보호협정('07), 사회보험협정('13), 기후변화협력협정('15), 영사협정('15), 자유무역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124,432,941	142,120,000	162,125,055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수 입	86,980,135	97,860,114	106,488,592	산업용 전자제품, 철강제품, 섬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말 누계, 총투자기준) 27,335건, 64,900,176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7.3	6.9	6.7	6.9	6.6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4	2.0	1.6	2.2
재정수지/GDP	-0.9	-2.8	-3.7	-3.9	-4.1

자료: IMF, EU

대외환경 악화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1991년 이래 최저치인 6.6% 기록

-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분쟁, 보호주의 강화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6.6%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여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시현하였으나, 내수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정부 목표(6.5%) 달성에는 성공함.
- 2018년 중국의 GDP가 처음으로 90조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산업별 GDP 구성 비중은 1차산업 7.2%, 2차산업 40.7%, 3차산업 52.2%으로 3차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4~18년 GDP 및 성장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2.2%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

- 2018년 8월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1.6%)대비 상승한 2.2%를 기록함.

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 등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 일자리 창출을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교육·의료 등 민생 관련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감세정책 시행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당분간 재정적자 지속세가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236,047	304,164	202,203	164,887	45,067
경상수지/GDP	2.2	2.7	1.8	1.4	0.3
상 품 수 지	435,042	576,191	488,883	476,146	428,447
상 품 수 출	2,243,761	2,142,753	1,989,519	2,216,458	2,424,695
상 품 수 입	1,808,720	1,566,562	1,500,636	1,740,312	1,996,248
외 환 보 유 액	3,843,018	3,330,362	3,010,517	3,139,949	3,072,712
총 외 채	1,771,069	1,383,000	1,416,000	1,711,000	1,826,000
총외채잔액/GDP	16.8	12.3	12.6	14.2	13.6
D.S.R.	6.5	7.9	8.2	8.1	9.3

자료: IMF, EIU

미국과의 무역분쟁 지속 상황에서도 무역규모는 안정적 성장 지속

- 중국 해관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및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무역규모가 전년대비 12.6% 증가한 4.6조 달러를 시현하여 무역분쟁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19년 1~2월 무역규모는 6,6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위축 우려가 여전히 상존함.
- 동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액은 6,3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함. 수출은 4,784억 달러로 11.3%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51억 달러로 불과 0.7% 증가하여,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2016년까지의 감소세 이후 안정적인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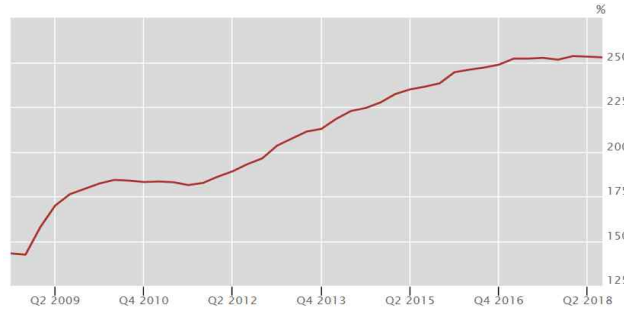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은 2015년 이후 증시 급락,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로 2016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와 외환유입 조치 등으로 안정세로 전환하여, 2018년말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3조 727억 달러)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 1월말에도 3조 879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과도한 기업부채로 인해 경제성장 저해 우려

-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의 부채(금융부문 제외)는 2018년 3분기 기준 GDP의 253%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차주별로는 정부 부채가 GDP대비 48%, 가계부채가 52%, 기업부채가 153%로 구성됨.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추진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차입을 확대한 것에 기인함.

GDP대비 부채 비중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 채권 디폴트 규모 및 비중의 급증세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35건(337억 위안)에 불과하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2018년 124건(1,206억 위안)으로 급증하였음. 이는 2013~17년 기간 중 전체 디폴트 금액보다 많은 수치로서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임. 중국 인민은행은 채권디폴트 비중을 0.79%로 추정하여, 최근 수 년간의 국제채권시장 디폴트 비율인 1.12~2.15%(Moody's 자료) 보다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2018년 중 새로 디폴트를 발생시킨 총 43개 기업 중 40개사가 민영기업이고, 3개사는 국유기업임.

성장잠재력

전방위적 개방정책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및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개방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음.
- 중국은 2019년 중에 외국인투자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역)의 범위를 축소하고, 농업·광업·제조업·서비스 영역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예정임.
- 앞서 2018년 6월 중국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 (63개 → 48개로 축소) 발표하였으며,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유동성 공급을 촉진할 계획임.

정책성과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노력

- 2019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초안)은 기존의 3법(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중 무역분쟁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농촌 빈곤인구 대폭 감소로 질적 성장 시현

- 2018년 농촌 빈곤인구 감소 규모가 1,386만 명에 달해, 당초 점부 목표(1,100만 명)를 상회함.
- 1979~2017년 기간 중 중국 농촌의 빈곤인구는 총 7.4억 명 감소하였고, 2018년 빈곤발생률은 1.7%까지 하락하는 등 전 세계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70% 이상의 높은 기여도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2014~18년 농촌 빈곤인구 감소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기업환경 대폭 개선, 역대 최초 50위권 진입

-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기업환경은 해외투자 관련 네거티브 제도 시행, 통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서비스 개선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78위에서 46위로 대폭 상승함.
- 2018년에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로 인해 평가항목 10개* 중 7개 분야에서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가장 빠른 기업환경 개선을 이루어냄.

* 창업, 건축 인·허가, 전력 공급, 재산권 등록, 소액투자자 보호, 납세, 통관, 계약이행, 파산처리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급준비율 인하 및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할 계획임.
- 2018년에만 총 3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고, 2019년 1월에도 2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대형은행 13.5%, 중소은행은 11.5%로 낮아짐.
-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종합소득의 기본공제 비용을 월 3,500위안에서 매년 6만 위안으로 개정하는 등 세율 구조를 대폭 수정함.
- 제조업 분야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3%로, 교통·건설업 분야는 현행 10%에서 9%로 각각 인하하는 등 증치세율 인하로 약 6,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정치동향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 공고화

- 2018년 3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추진했으며, 주석직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1인 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함.
- 중국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집권체제를 구축함.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하였으며, 2019년 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를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강령으로 여기는 것으로 결의함.

양안 관계에 대한 '하나의 중국' 입장 고수

- 대만 독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였고, 미국에 대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함.
- 미·중 무역분쟁의 당사자인 미국에 대해서도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신년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계되는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무력 사용 등 모든 수단의 동원 가능성을 언급함.
- 2019년 3월 정치협상회의에서도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식적인 대만 독립 반대 의사를 견지하였음.

사회동향

신장 자치구 등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 통제 강화

-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 내 '테러·분리주의·종교 극단주의' 근절을 명목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 중임.
- 미국은 이에 대해 2019년 3월 '국가별 인권보고서 2018' 에서 집단 수용소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최근 터키계 이슬람교 신자인 위구르족 주민의 사망으로 인해 터키와도 외교적인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발생을 부인하였음.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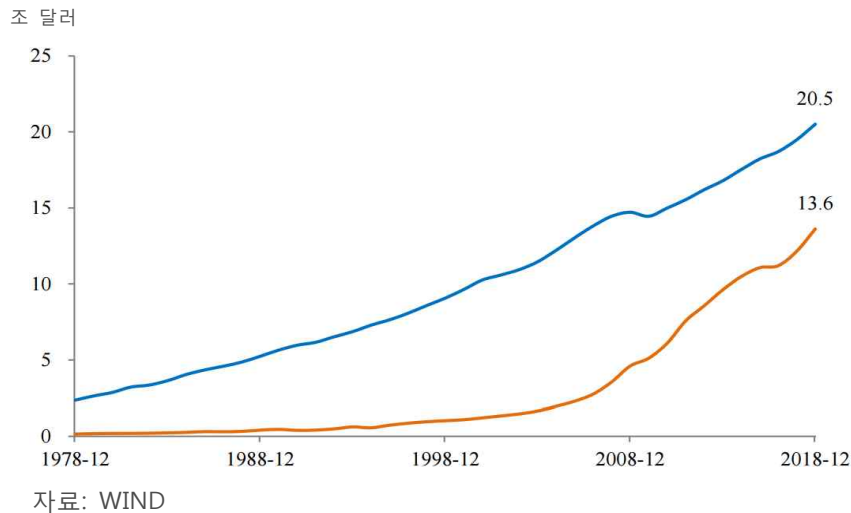
- 2019년 2월 최고인민검찰원은 금융리스크 감소를 위해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2018년에 강력범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약 6만 명으로 전년대비 5.9% 감소하였으나, 금융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약 2만 7천 명에 이르러 전년대비 10.9%나 증가하였음.

국제관계

무역분쟁 등을 통한 미국과의 긴장관계 지속 전망

- 2018년 3월 본격화 된 미·중 무역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2017년 전체의 47%) 해소를 위한 것에서 촉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사안임.
- 1980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11%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66% 수준까지 성장하였음.
- 미·중 무역분쟁 등을 고려한 외상투자법 제정 등 개방 확대 조치는 향후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 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생략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및 외국인투자 확대 등 전방위적인 개방 확대 계획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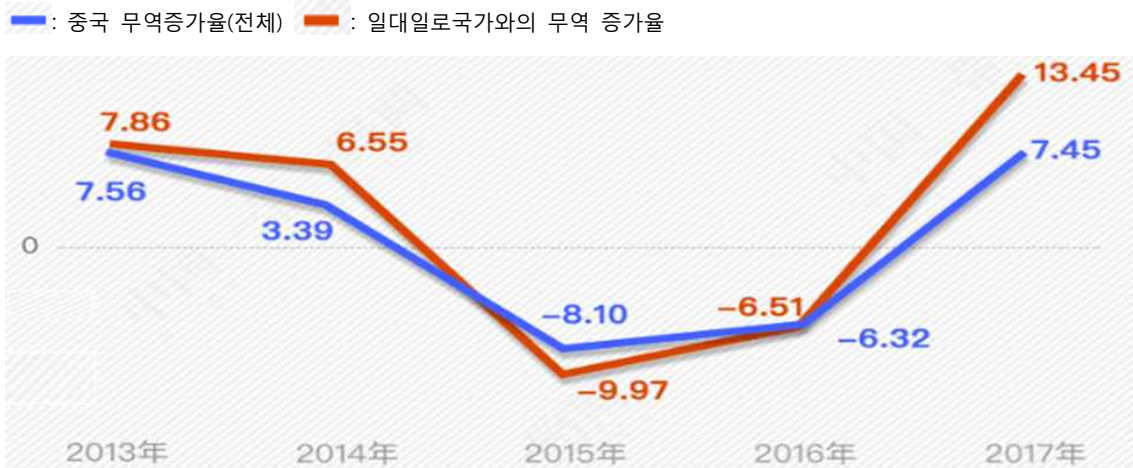
미·중 GDP 규모 비교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아프리카 등 국제 관계 외연 확대

-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지난 5년간 중국 대외무역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2013~17년 일대일로 국가와의 무역액은 총 7.0조 달러이고, 2018년에도 1~11월 무역액이 1.2조 달러임.
- 대체로 일대일로 국가와의 무역액 증가율(2018년 18.3%)이 전체 증가율(2018년 14.8%)을 상회함.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5년간 대외무역 증감 추이



자료: 중국 해관 통계

- 시진핑 주석은 2018년에 4차례 해외순방으로 아프리카 4개국(세네갈·르완다·남아공·모리셔스) 등 총 13개국을 방문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8년 말까지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 122개 국가와 170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 최초로 일대일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일대일로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18년 신규 회원국(9개국*)을 포함하여 총 93개 회원국이 가입하였으며, 2018년 중 11개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승인을 통해 3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함.
- * 파푸아뉴기니·케냐 (이상 5월), 레바논(6월), 알제리·가나·리비아·모로코·세르비아·토고(이상 12월)

외채상환태도

풍부한 외환보유액 보유 및 대외순자산에 힘입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4~16년 외환보유액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으며(2019년 1월 기준 3조 879억 달러), 총외채는 GDP 대비 약 14%에 불과함.
- 2018년 9월말 기준 대외순자산이 1.7조 달러(대외금융채권 7.0조 달러, 대외채무 5.3조 달러)로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임을 감안 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7년에 단기외채 규모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하여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최근 중국의 외채구조 변화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외채잔액	중장기 외채			단기 외채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잔액	전년대비 증가율	비중	잔액	전년대비 증가율	비중	
2015	1,382.98	495.57	2.9	35.8	887.41	-31.6	64.2	26.6
2016	1,415.80	549.76	10.9	38.8	866.04	-2.4	61.2	28.8
2017	1,710.62	611.58	11.2	35.8	1,099.04	26.9	64.2	35.0

자료: 중국 외환관리국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18.06)	2등급(2017.06)
Moody's	A1 (2017.05)	Aa3 (2016.03)
Fitch	A+(2018.12)	A+(2017.08)

Moody's 신용등급 하향 조정

- Moody's는 2017년 5월 경제 및 금융시스템 개혁조치 시행효과가 제한적이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채 증가세 지속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 하였음.
- 한편, OECD는 2018년 6월 CRE 회의 결과 중국의 신용등급을 전년과 동일하게 2등급으로 유지함.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2018년 6.6%의 성장을 시현하여 지난 28년 이래 최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정부 목표치인 6.5%를 달성한 합리적 수준의 성장으로 평가됨. 2015년에 이미 '바오치'(保七: 7%대 경제성장)가 무너진 중국 경제는 2019년에 6.0~6.5%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며 '바오류'(保六) 사수를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각종 감세정책 등의 경기부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8년 13.6%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9.3%로 낮은 수준임.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자 2020년 의식주 해결의 풍요로운 사회(샤오강 사회)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이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력할 계획임.